풍속화로 만나는 조선과 유럽의 흥미로운 문화 교차점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조선과 서양의 풍속화, 시대의 거울

장혜숙 지음

김홍도의 '길쌈'과 빈센트 반 고흐의 '실 잣는 사람, 밀레 이후'는 유사한 점이 많다. 시공간은 다르지만 여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여러 공정을 거쳐야 실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조선의 여인은 앉아서 일을 한다. 배 한 필을 얻기까지 11개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서양의 여인은 입식생활에 맞춰 의자에 앉아서 물레를 돌리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반세기 이전만 해도 길쌈의 모든 과정은 집안에서 이루어졌다. 길쌈은 동서양 모두 여인들의 중요한 가사 노동 가운데 하나였다. 고흐 또한 가난한 노동자에게 강한 애착을 느꼈다. 베틀에서 작업을 하는 직공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이 여러 장 있다.

김홍도와 고흐의 풍속화에는 소시민 모습이 담겨 있다. 길쌈이 얼마나 힘든 노동이었던지 예로부터 전해오는 여인들의 노래가 말해준다. 다음은 경북 김천시 남면 운봉에서 수집된 '여성 탄식가' 일부다.

"여자몸이 되어나서 인들 아니 원통한가 누대종가 종부로서 봉제사도 조심이오 통지중문 호가사에 접빈객도 어렵더라 모시낳기 삼베낳기 명주짜기 무명짜기 다담일어 베틀보니 직임방적 괴롭더라"

동시대 조선과 서양에는 그 나름의 공통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김홍도의 '길쌈'과 고흐의 '실 잣는 사람, 밀레 이후'의 그림은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

조선과 유럽의 대중 풍속을 비교한 '조선과 서양의 풍속화, 시대의 거울'은 흥미로운 책이다. 단순한 풍속화를 넘어 문화의 교차점을 그림의 대비를 통해 보여준다. 저자는 리움미술관 도슨트로 15년간 활동했으며 '삶의 미술관', '독일에서 온 편지 그리고 사랑'을 펴냈던 장혜숙 작가다.

저자는 잊힌 옛 이야기들, 한국전쟁 후까지도 남아 있던 우리 옛 모습을 소환했다. "눈으로 본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그 모습이 파묻힐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에 책을 썼다고 한다.

윤덕희는 아버지 윤두서가 개척한 풍속화를 이은 인물이다. 윤덕희의 아들 윤용도 가풍을 이었는데, 이들 가문은 책을 통해 예술과 정신을 후대에 전승했다. 녹우당에는 책이 많았는데, 저자에 따르면 윤두서의 '미인독서'와 윤덕희의 '독서하는 여인'은 녹우당 서책들이 만든 그림이라는 것이다.

'독서하는 여인'은 단정한 차림의 여인이 개다리 의자에 앉아 독서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기다란 파초 잎을 배경으로 앉은 여인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다. 무릎에 책을 펼치고 책을 읽는 여인에게서 지성과 기품이 배어나온다.

장오노레 프라고나르의 '책 읽는 소녀'는 프랑스 로코코 시대 그림 중 하나다. 여성스러움과 감성적인 분위기가 잘 표현된 작품이다. 작가는 미세한 붓놀림으로 얼굴을 그렸고 드레스와 쿠션에는 느슨한 붓놀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조선의 여인과 서양의 소녀가 읽는 책은 어떤 내용일까?'라는 질문으로 서로 다른 시대의 풍속화에 대한 호기심을 이끌어낸다.

김득신의 '밀희투전'은 당대 금지된 투전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밤을 지샐 만큼 투전에 빠진 사내들 모습은 돈에 탐닉하는 시대상을 보여준다. 김득신은 4명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투전판에 몰입된 심리를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김홍도의 '길쌈'
▶빈센트 반 고흐의 '실 잣는 사람, 밀레 이후'

폴 세잔의 '카드게임 하는 사람들'은 인물들과 사물의 공간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세잔의 카드놀이 그림은 도박이 아니라 김득신의 '밀희투전'에 나오는 두둑한 돈주머니도 없다. 그러나 여러 소품을 그림으로써 주변 묘사를 꼼꼼히 한 것은 김득신의 그림이나 세잔의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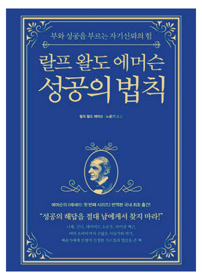
이밖에 책에는 강희언의 '석공공석도'와 존 브렛의 '돌 깨는 사람', 조영석의 '이 잡는 노승'과 바르톨로메 무리요의 '거지 소년', 신윤복의 '쌍검대무'와 장레옹 제롬의 '전무' 등을 대비한 이야기도 수록돼 있다.

〈동연·3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랄프 왈도 에머슨 성공의 법칙

랄프 왈도 에머슨 지음, 노윤기 옮김



다음은 누구일까. 미국 최초 철학자이자 시인이며 19세기 초월주의 운동을 펼쳤던 인물이다. "에머슨이 없었다면 진정한 의미의 문학은 탄생할 수 없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에머슨은 미국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문학 외에도 에머슨은 민권 개념 등으로 미국인들에게 각인돼 있다. 간디를 비롯해 오바마, 마이클 잭슨이 가장 사랑한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다.

에머슨의 에세이 '랄프 왈도 에머슨 성공의 법칙'이 출간됐다.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그의 성공법칙은 귀담아들을 만 하다. 그는 나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자기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말이지만 많은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책에는 에머슨이 강조한 5가지 성공 법칙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구체적으로 '인생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나를 결정한다', '사람은 사람이 만든다',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라',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받아들여라' 등이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는 자기 자신의 신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신의 마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재에 집중하며, 사람보다 높은 가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말처럼 쉽지 않지만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면 에머슨의 말을 이해할 것도 같다.

에머슨은 말한다. "자기 자신을 고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거짓되지 않은 기도를 하고, 나를 잃지 말고, 독창성을 가지며,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고.

〈피카·1만7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중한 보물들

이해인 지음

"수십 년 간직한 어느 독자의 빗자루 카드. 나쁜 기억은 다 쓸어버리라고, 어느 해 연말 미지의 독자가 보내주었다. 빗자루에 붙어 있던 편지지는 어딘가로 사라지고 풀로 만든 빗자루만 남아 있다."

"어머니가 수놓은 꽃 골무 하나를 침방 벽에 걸어두고 오가며 본다. 꽃 골무를 볼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꽃으로 피어난다. 내게 꽃 골무는 그리움이다."

이해인 수녀에게는 보물이 많다. 빗자루 카드며 꽃 골무, 단추, 사형수의 목각, 솔방울, 앵무새 인형, 젓가락에 말린 옥수수를 꽂아 만든 등긁이까지 저마다의 사연이 담긴 소중한 보물들이다. 올해로 우리 시대의 시인 이해인 수녀가 1964년 수녀원의 문을 열고 들어간 지 60년이 되었다. 수녀원 입회 60주년을 기념해 그간 품어온 이야기를 담은 단상집 '소중한 보물들'을 펴냈다.

모든 사람을 보물로 생각한다는 저자는 그동안 맺어온 인연들의 이야기와 그들에게서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소개한다. 일간지에 연재한 글 일부와 '민들레의 영토' 회원들과 나눈 메모, 최근 쓴 일기 부분을 추려 엮은 글들로, 순간순간을 보물로 만들며 살고 싶은 수녀의 바람이 담겼다.

1부 '글방의 따사로움'은 1997년 문을 연 해인글방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해인 수녀가 만난 사람들의 사연, 글방 사물들의 사연을 풀어놓는다. 2부 '생명의 신비로움'은 환우 수녀가 일군 한 평 꽃밭, 태산목 등 자연에서 배우고 터득한 지혜를 공유한다.

3부 '수도의 향기로움'은 수녀원의 풍경을 스케치하며 동그란 마음을 그리고, 4부 '생활의 부드러움'은 나의 하루를 안아주고 사랑하는 즐거움을 술회한다. 마지막 5부 '추억의 아름다움'은 어머니의 유품부터 문인들과의 일화까지 시간이 흐르며 아름다워지는 추억을 이야기한다.

〈김영사·2만2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상식의 독재

한윤형 지음

극단의 혐오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적 삶'을 탐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상식'만이 독재하고 득세하는 세상에서, 전통의 발견과 혐오사의 탐구는 올바른 '상식'을 세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상식선'을 들이밀며 타자는 모두 몰상식하다고 생각하는, 현시대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책이 나왔다. 기자 및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일하며 사회과학 지식을 쌓아 온 한윤형이 쓴 '상식의 독재'는, 성리학 시대부터 상식의 시대로 변모해 온 한국사회의 변천사를 둘러보며 이제껏 없던 새로운 논의를 도출해 내는 책이다.

"책을 이끌어가는 화두는 '상식'이다. '한국적 삶'의 특성 및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어느 날, '상식(常識)'의 문제를 만나게 됐다./(…) /문제를 지적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는 현실에 맞닥트렸기 때문이다."

책은 지극히 '상식'이라는 자기편협한 기준을 통해 세상을 재단하는 현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 같은 '상식 문제'는 주류와 평균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방외자'로 치부하고, 그들에게 철저한 '무신경함'의 잣대를 들이민다는 것이다. 상식이라는 화두가 오히려 '상식의 지배'를 낳게 됐고 무신경의 현실적 기반을 쌓아 올렸다는 논지는 흥미롭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는 '상식'이 'Common sense'와 같은 보편타당히 따라야 할 규범의 의미를 넘어, '따라야 할 도덕 기준'이라는 기준까지 합의한다고 언급하면서 "상식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결과가 상식에 승복하길 바라는 욕망"이 그릇된 점이라고 이야기한다.

〈생각의힘·2만2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